

모두 즐기는 ‘아트’ 실천…컬처 플랫폼 역할 다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올해 계획 발표

지난해 359만명 최다 방문…창·제작 79.4%
 ‘ACC 미래상: 김영은’ 전·신진작가전 등 ‘다채’
 판소리 시리즈 ‘적벽’ 준비·상생 생태계 구축
 시니어 투어 등 보편적 문화 복지 실천 ‘주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우)이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6년을 ‘ACC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적인 문화교류 거점 기관 및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개관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최다 방문객 수 359만4600여명을 기록했다. 개관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2247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개관부터 지난해까지 ACC가 제공한 콘텐츠는 총 2277건으로, 이 중 창·제작 콘텐츠의 비중은 79.4%(1809건)다. 지난 10년간 ACC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이 넘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놀이터’로, 국내외 176개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리는 ‘정조적 교부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ACC는 올해 지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넘어 더욱 문력을 낮출 열린 운영으로 그 동안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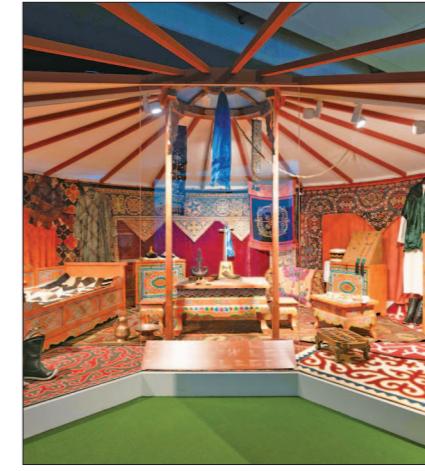
제작 플랫폼이자 세계적 문화교류 거점기관으로 나가고자 한다. 이는 올해 ACC가 표방하는 목표와 지점들이 압축된 문장이다. ACC가 지난 29일 오전 신년 간담회를 갖고 발표한 올해 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다.



‘시민을 칠하는 사람’ 공연 모습.

영상·설치미술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100채널 스피커, 어쿠스틱 패널, 조명 등을 설치해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11회째를 맞은 ‘ACT 페스티벌 2026’은 예술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문화축제로,오는 10월 ‘아이·휴먼’을 주제로 열린다. 전시에서는 ‘피지컬 AI’ 기반 로보틱스 작품 및 몰입형 확장현실(XR), 시각예술과 사운드 아트를 접목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디어 아트 융복합 콘텐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 등 문화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작가전 ‘파편의 파편: 박지호·정광희’가 관람객을 맞는다. 박지호·정광희 작가는 ‘ACC 지역협력협의회(2025)’ 추천 작가로, 남도 수목 미학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관하는 전시 7관에서는 ‘ACC 뉴스터(NEWST)’를 통해 선정된 지역 작가 전시가 오는 3~8월 순차적으로 열린다. ACC는 지난해 광주



‘길위의 노마드’ 전 전경.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운영 모습.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실시해 이정기, 서영기, 양나희, 임수범, 하승완 등 총 4팀(5인)을 선정. 작품 창작활동 및 전시를 지원한다.

ACC는 지역적 저력이 있는 판소리와 국장의 강점인 문화기술을 결합한 미디어 판소리극을 문화전당 제1의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해온 가운데 올해는 미디어 판소리 연작 시리즈 네 번째 작품 ‘적벽(가칭)’을 준비 중이다. 공간 특성형 공연 ‘ACC 5월 레퍼토리–시간을 칠하는 사람’

을 다시 무대에 올려 이동형 객석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변신한 예술극장의 공간 미학을 더해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서아시아의 교류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한다. 또한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올해 AI를 활용한 아시아 이야기 지도를 구축해 아시아 신화·설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사나미의 길’을 주제로 신기술 체험형 전시는 오는 12월 아시아문화박물관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해마다 인기를 모으는 ‘아시아문화예술 교육’이 올해도 연중 운영된다. 교육은 일반 시민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시아 의식주 여행, 아시아 예술체험, 아시아 문화박물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인문강좌, 접근성 향상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ACC는 콘텐츠 창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콘텐츠 발굴·실행 과정’도 진행한다. ACC는 교육과 현장을 잇는 실무 중심 교육인 ‘ACC 전문인’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장비 및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내외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ACC는 올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문화예술 경제적 가치 창출에 보다 기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운영, ‘모두를 위한 ACC 개선 추진 과제 19건’을 발표, 추진해왔다. 올해는 특히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을 실천하고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니어 투어’를 4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일상 안팎의 지점들서 치유의 서정 모색

함진원 제4시집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 삶의 자취 펼쳐…총 4부 구성 60편 수록

“오랜 겨울을 보내면서 마음은 의지할 들국처럼’ 전문)라고 노래한다. 비가 오는 날 이모를 기다리며 드란 여인은 이모에게 ‘가만히 불러보는 이름’(문화학자)의 서문에서 밝힌 말이다.

이는 광주를 연고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 함평 출생 함진원 시인이 최근 펴낸 네 번째 시집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문화학자)의 서문에서 밝힌 말이다.

이번 시집은 꽃씨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편 한 편을 쓴 듯하다. 12·3비상계엄 이후 한국이라는 꽃잎이 마구 떨어져내리는 상실 앞에서 시인 역시 처참한 심경으로 목도했을 터다.

그 심경의 긍정적 에너지들을 끌어올려 상실을 채워넣으려고 떨어진 꽃잎 자리에 또 다른 꽃으로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창작의 산고를 기꺼이 감수했을 것이다.

시인의 시는 일상 공간에서 바라본 풍경들을 스펀지 물 뺨이들이듯 투영한다. 그것이 공적이든, 사회적이든 노래하는 자신의 직무처럼 저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아스라하게 펼친다.

시인의 시 ‘한동안 들국처럼’처럼은 마치 시인의 일상 꽃을 들여보다보듯, 그의 시간들이 적나라하게 읽힌다.

시인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데/종이학을 접으며/온에 이모를 것 같다고 묻기도 했지요/비 맞은 그리움이 살구꽃으로 피면/이모는 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온다고 했어/적막한 집에 열한 살 어른이/여문 감자처럼 자라도/쌓여 가는 기다림은 오지 않고/모난 하루 넘어 이를/기다리지 않아도 안 오는 하루/한동안 들국처럼 우두커니 둥그리며 그리며/은혜 이모 올까 안 올까’(‘한동안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

다. 시인이 좌표찍듯 일상 안팎의 지점들을 찾아다니며 마음을 어루만졌지만 근본적 치유에는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새까만 속’은 삶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끝내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시집은 총 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해온 작품 60편이 실렸다.

고재종 시인은 추천사를 통해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실존적 불안과 우울 그리고 타나토스를 사회정치학적 상상력으로 거듭히 이겨내며 삶을 다진다. 그런데 그 다진 삶이 어떤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세속적 방식이라기보다. 섬기고 사랑하고 자발적 가난의 길을 가는 순명의 삶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연도, 가족에게 헌신하는 시간도 힘들면 힘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꾸며 흥미화 피고 사과꽃 기다리는 자연의 이법을 따르고자 한다. 바로 그것이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의 그분에게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시인의 결론은 참으로 이를맙다”고 밝혔다.

함진원 시인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조선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1995년 무등일보 신춘문예에 시 ‘그해 여름의 사우리 諷(조)’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인적 드문 숲길은 시작되었네’, ‘푸성귀 한 잎’집으로 가고 있다.

시인은 ‘가끔 속이 뒤집어지는 날’ 묻는 물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다. 이는 독자와 시인 자신에게 던지는 공통 질문이다. 삶의 근원과 본질에 관한 문제다.

전자는 실제이고, 후자는 현상에 관한 물음 같다. 그런데 그런 날 시인은 때로는 시크했다가 다분히 감상적 지점을 오가는 모양이다. ‘어느새 가을이 돌아서서 올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시인은 읊적하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한 해의 시작…잠시 멈추고 ‘삶’ 바라보기

대담미술관서 내달 15일까지

9Points’ 타이틀로 9명 출품

전남 담양 소재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새해를 여는 기획초대전을 지난 14일 개막. 3월 15일까지 열고 있다. ‘9Points’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번 전시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9명의 작가가 ‘새해’라는 하나의 시간 앞에서 떠올린 생각과 감각을 각자의 붓글씨로 풀어내고 있다. 여기서 ‘9Points’는 한 해의 시작에서 잠시 멈춰 서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의도다.

출품 작가들에게 아이디어스케치는 방향을 제안할 뿐, 늘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감각으로 완성된다. 머릿 속에 머물던 생각이 붓글씨로 따라 화면과 마주하듯, 작품은 선택과 수정으로 비로소 완성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인생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새해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획에 따라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번 전시에서 이 달



정정임 작 ‘내면의 질주’

을 기획의도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아홉 시선’은 새해를 바라보는 아홉 개의 서로 다른 태도와 감정을 의미한다. 또 각자가 서있는 ‘새해의 지점’을 뜻한다. 누군가는 설렘으로,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새해를 맞이한다.

참여 작가로는 박성휘 박해경 이후 국 임수영 정순아 정경임 진하 최근일 한갑수씨 등 9명이다. 이들 작가는 병

오년의 시간성을 각자의 언어로 해석해 작품을 제작했으며, 관람객은 작품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서 있는 ‘새해의 지점’을 발견한다.

전시실 입구에는 ‘병오년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들’이라는 작품이 배치돼 관람객의 첫 장면을 연다. 전시실 3면에는 작가들이 각자의 고유한 스타일로 구성한 작품들이 이어진다.

관람객은 작품 사이를 거닐며 자연스럽게 ‘이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업일까?’를 떠올리게 된다. 서로 다른 표현 언어를 비교해보는 과정에서 감상의 의미가 더해지고, 작가별 작업세계가 선명하게 대비돼 한눈에 전시가 읽힌다.

기획자인 최아영 부관장은 “새해 계획과 작가의 스케치는 미래를 향해 방향을 세우고, 다음 과정을 이끄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며 “아홉 명의 작가가 창작 과정을 덧입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관람객들 또한 시간의 층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조금씩 완성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기억·윤리·평화 있는 기획전, 시민 호응 속 연장

광주역사민속박물관, 4월10일까지

영화 계획이었다.

이 전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 실천과 광주와의 역사적 연대, 한강 작가의 문학 속 폭력과 상처의 기억 그리고 5·18 사적지를 기록해 온 지역 사진작가들의 시선을 하나의 서사로 엮었다. 이를 통해 광주가 간직한 기억의 자원이 오늘

날 윤리와 책임, 평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람객이 기억·윤리·평화에 대한 생각을 글로 남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은 전시



가 일방적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시민 개인의 성찰로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

박물관은 시민의 호응과 기획전이 지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더 많은 시민이 전시를 관람하고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시 기간을 연장했다. 박물관은 향후 민주·인권·평화 관련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체경 기자